

# 여수에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 생긴다

### '교육특구' 지정... 글로벌 산업인력 양성

### 내년부터 초·중·고교별 1곳 이상 운영

지난해 하반기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여수 등 전국 5곳에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가 운영된다.

3일 교육부와 여수시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열어 초·중·고교별 1곳 이상 운영을 위한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육국제화 선도모델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다. 교육특구는 여수시를 비롯해 대구 북구와 달서구, 인천 연수구와 서구·계양구 등 5개 지역이다. 여수시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글

로벌 기업들과 연계한 국제적인 산업인력양성 모델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초·중·고교별 1곳 이상씩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가 지정·운영된다. 다음달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이 나오면 공모 절차를 거쳐 시범학교를 선정,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학교는 초·중·고교별 1곳 이상 운영을 위한 청사진이다. 교육특구는 여수시를 비롯해 대구 북구와 달서구, 인천 연수구와 서구·계양구 등 5개 지역이다. 여수시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글

교육부는 시범학교에 특성화된 교육과정·프로그램의 운영, 국제화 전담 교원의 채용과 연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남도교육감 산하에 '국제화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를 뒤 시범학교가 취지대로 운영되는지를 지도·감독하게 할 방침이다.

글로벌 산업인력 양성 사업으로는 전남대·여수산단 기업들과 협력해 맞춤형 석유화학플랜트 엔지니어링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미취업 청년들이 여수산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인 '테크닉스쿨'을 강화하고, 해양레저스포츠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교육인프라 사업으로는 여수 국제종합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특구사업은 국고 예산 없이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과 지방비로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국고를 지원한다. 특구 사업에 대해선 매년 연차별 평가와 함께 5년 단위 종합평가를 하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여수국제청소년축제 23~28일 개최

### 30개국 200여명 참가

여수시는 3일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여수국제청소년축제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여수시 일원에서 열리며, 전 세계 30개국 이상 나라에서 2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청춘, 미래로 움직이는 섬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여수국제청소년축제는 여수 바다를 배경으로 청소년들이 국제교류캠프를 통해 지구촌 청소년 문화교류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가치를 계승하는 축제로

마련된다.

개막식은 K-POP 특별공연과 더불어 국제교류캠프에 참가한 국내·외 청소년 400명이 나서 메인무대 오보제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넌버블 퍼포먼스 JUMP', '청춘 Party'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킬 전망이다.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국제교류캠프는 국내·외 청소년들이 금오도와 사도, 여자도, 개도 등 여수의 대표적인 7개의 섬과 여수세계박람회장, 오동도 등을 찾아 우정과 화합을 다지게 된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광양 백운산 '치유의 숲' 조성

### 2015년까지 100억 투입 힐링 캠프장 등 들어서

광양시가 2015년까지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백운산 자연휴양림과 생태숲을 연계한 명품 종합산림문화휴양타운, 즉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

3일 시에 따르면 백운산 치유의 숲에는 옥룡면 추산리 휴양림 인근에 "나를 찾아 떠나는 치유 숲길" 따듯한 햇살과 광양의 풍취가 있는 '곳'이란 구상에 따라 각종 시설이 설치된다.

수준 별로 난이도가 나뉘어진 치유 숲길을 비롯해 치유센터, 뜰, 기동장, 흡기욕장, 산림욕장, 숲속 풍욕장 등 산림치유 시설과 숲속모험동산, 활공장, 힐링 캠프장 등 편의시설 등이 그것이다.

시는 그동안 중기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제221회 광양시의 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었다.

따라서 향후 전라남도지사로 부터 백운산 치유의 숲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2013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치유의 숲이 조성되면 주변의 자연휴양림, 생태 숲, 산림문화휴양관 그리고 인근의 문화 및 휴양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백운산의 관광 명소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숲이 지닌 보건·의학적 치유 기능을 강화한 숲을 일컫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꽃섬' 여수 하화도 절경

최근 생태적 가치와 절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여수시 화정면 하화도 전경. 여수시는 하화도의 '꽃섬길'을 여수 밤바다 야경투어 상품과 연계한 체험형 숙박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및 여행사 관계자 등 70여명을 초청, 4일부터 1박2일간 하화도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팸투어'를 실시한다.

최근 생태적 가치와 절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여수시 화정면 하화도 전경. 여수시는 하화도의 '꽃섬길'을 여수 밤바다 야경투어 상품과 연계한 체험형 숙박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및 여행사 관계자 등 70여명을 초청, 4일부터 1박2일간 하화도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팸투어'를 실시한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 조성 감사 청구

순천시의회가 3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신대배후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신대배후단지 조사특위(위원장 김석 의원)가 발의한 신대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한 의혹 규명을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 사업 시행자가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로 변경되면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순천시의회가 특위를 구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조사활동을 벌였다.

감사청구할 부분은 순천에코밸리의 대주주인 흥중건설이 고층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있는 점, 외국인 병원부지는 개발이 끝난 후 순천시에 무상양도해야 하는데도 이 부지를 제3자에게 돈을 받고 팔려고 한 점, 외국인에게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를 제공하기로 돼 있는데도 임대아파트를 지어 임대를 시도한 점 등이다.

이 밖에도 시행 사업자가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로 변경된 과정 및 절차 등의 적법성 여부, 순천에코밸리가 9차레나 개발계획을 변경한 부분, 9차례의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위 적법성 여부 등도 포함됐다.

순천시의회는 감사청구안, 감사청구서, 특위 활동 자료 등 서류를 오는 5일까지 감사원에 보낼 계획이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 전북



남원 운봉 고랭지 백합 수확

정마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3일 오전 남원 운봉 고랭지 비닐하우스에서 농민들이 고품질 수출용 백합을 수확하고 있다. 운봉에서 생산되는 백합은 난방이 거의 필요 없는 7월~11월에 생산·출하되며, 주야간 일교차가 커 꽃색이 품종별로 선명하고 향기가 강하고 꽃의 수명이 오래 유지된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정마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3일 오전 남원 운봉 고랭지 비닐하우스에서 농민들이 고품질 수출용 백합을 수확하고 있다. 운봉에서 생산되는 백합은 난방이 거의 필요 없는 7월~11월에 생산·출하되며, 주야간 일교차가 커 꽃색이 품종별로 선명하고 향기가 강하고 꽃의 수명이 오래 유지된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 순창, 읍면 정비사업 2016년 마무리

### 4곳에 250억 들여 공원·운동 휴양시설 등 조성

순창군이 민선 5기의 대표사업인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나서 오는 2016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군의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고 있는 신규 핵심사업으로, 읍면 소재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순창읍과 북흥면, 생지면, 구림면 등 4개 읍면에 25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6년까지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경관을 개선,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

사업은 1단계로 순창읍과 북흥면을 우선 추진하고, 2단계로 생지면과 구림면을 추진한다.

순창읍은 100억원을 투입해 2015년까지 읍사무소 앞에 일품공원과 공동주차장 4개소를 조성하는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흥면과 생지면에는 각각 50억원을 투입해 2015년까지 복지회관, 다목적 운동 휴양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5개 사업을, 2016년까지 운동휴양공원 조성 및 실내체육관 건립 등 12개 사업을 각각 추진되고 있다. 구림

면도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2016년까지 운동휴양공원 조성 및 운동장 체육 시설 설치 등 12개 사업이 착공된 상태다.

군은 나머지 7개면의 소재지도 정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모에 응모해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군정의 최우선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있다"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살기좋은 순창을 만드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부안 제2농공단지 도계공장 약취 심각

### 5곳서 하루 2000~2500t 오폐수 방류

부안지역 환경단체들이 부안군 제2농공단지 내 한 도계공장의 약취 등 환경오염 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부안군 환경단체인 '사단법인 전북 환경봉사단 부안지회'와 '사단법인 환경보호 국민운동 부안지역본부'는 3일 "(주)참푸레 도계공장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약취문제가 부안군의 토질오염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농공단지 내 오폐수처리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사중인 제2오폐수처리장에 (주)참푸레 등 입주한 업체 5

곳이 하루 2000~2500t의 오폐수를 자연방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입장이다.

전북환경봉사단 부안지회 박상훈(50) 단장은 "사실상 부안 제2농공단지에 입주한 5개 업체 가운데 참푸레에서 발생하는 폐수량이 90%가 넘는 다"며 "이 업체가 일과시간 이후 시험가동중인 제2차 오폐수시설에 한꺼번에 방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제2오폐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주)한미엔텍 역시 모호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정재욱기자 jj0681@

## 익산 '패션 주얼리 공동 R&D센터' 착공

익산시에 패션 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가 들어선다.

익산시는 3일 "주얼리 전문단지에 1만3000여㎡의 규모로 '패션 주얼리 공동 R&D센터'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178억원이 투자되는 센터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연구소와 도급

시설동, 폐수처리동 등이 들어선다. 내년 6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익산시는 센터가 완공되면 초기 투자 부담 완화와 신소재·신기술 개발의 원가 절감, 기업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의 효과로 익산 패션 주얼리 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익산=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 시가지 주민들이 최근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다양한 식물과 꽃을 받아들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정읍시, 상습 침수 제1농공단지 복구 완료

정읍시가 매년 우기에 상습적 침수 피해 발생지역인 제1산업·농공단지 일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복구사업을 추진, 배수펌프장과 배수암거 정비를 최근 완료했다.

정읍시는 3일 "지난 2012년 8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뒤 2012년

9월 수해복구사업비 83억원을 확보, 공사에 착수해 배수펌프장 및 1.3km의 배수암거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설치된 배수펌프장은 분당 490t의 배수용량으로 향후 시우량 85mm까지 침수방지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고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설명회

고창군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석정웰파크시티 회의장에서 개최된 매일유업(주) 임직원 워크숍을 활용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일 이강수 군수는 매일유업(주) 김정환 회장과 이창근 사장 및 임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

지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추진배경 및 경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군수는 상하공간의 친환경 유기농 제품 생산과 관련해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매일유업(주)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고창=윤형기기자 cy0370@

## 순창, 강천산 상가 원산지 표시 점검

순창군은 지난 2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순창사무소와 합동으로 강천산 상가와 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특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 시행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강천산은 국민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강천산 내 일부 상가와 노점에서

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철에 나오는 농산물과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점검 내용은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수입농산물의 의도적인 원산지 미표시 또는 국산 위장판매 행위 등이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정읍, 공공근로 참여자 대상 안전교육

정읍시는 지난 2일 저소득 취약계층 3단계 공공근로 및 하반기 지역공동체 사업참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주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도원 강사를 초빙, 산업재해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김성기 정읍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장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6000여개의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공공부문 48개사업 3971명, 민간부문 9개사업 2076명 등 총 57개 사업 6047명에게 217억원을 들여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